

# 문화와 봉사, 교육이 있는 대학생활관



강대진  
전국대학교생활관협의회 부회장 /  
세종대학교 건설개발과 주임

## 1. 기숙사에서 생활관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반값기숙사 정책인 행복(공공)기숙사와 외국인 유학생 인증정책, 우수한 지역인재의 유치, 대학기관 인증평가의 기숙사 수용률 10% 이상 반영 등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기숙사의 시설과 인원은 대규모 기숙사의 신축과 맞물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거안정 요구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새로운 교육대안으로 RC(Residence Collage)기숙형 대학의 구현 등으로 변방의 부서에서 대학경쟁력 강화의 핵심부서로 성장하고 있다. 기숙사에 하드웨어인 건물의 성장을 넘어서 문화와 봉사,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가동되고 있다.

기숙사에서 생활관으로 패러다임이 변한지 오래다. 말과 용어가 정의하는 대로 일은 진행되기 마련

이다. 기숙사를 생활관으로 불러야 하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다. 기업의 기숙사와 대학의 기숙사는 시설의 차이뿐 아니라 근본적 생활과 교육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마치 시인 김춘수의 '꽃'처럼 어떤 의미로 불러 우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활용은 180도 다르다.

단순히 숙박의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여가와 학습,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되는 복합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스포츠와 레저, 취업과 창업, 비정규 교과목인 리더십과 인성교육 등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커뮤니티 타운이 바로 기숙사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와 봉사가 있는 곳, 자율과 자치문화가 존중받아야 하는 곳,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교육과 대학의 창학정신을 교육하는 곳이 바로 생활관이 되고 있다. 생활관은 성장의 입구이자, 문화교류의 장이고, 젊음

## 자료1 | 2014년도 기숙사의 정보공시와 주요이슈들 - 기숙사 개념의 변화

시대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1970년대	지방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집단숙박소 개념(Dormitory)	단순 숙박위주의 개념 고교 기숙사와 차이 없음
1980년대	중대형 기숙사의 등장 선배가 후배를 키우는 공간	원룸 3-4명 다수, 2인실 증가
1990년대	다양한 편의시설 / 부대시설	대형 및 고층 기숙사 형태 등장
2000년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복잡화 생활관으로의 명칭사용	제공시설의 다양화, 민간자본투자, BTO의 등장, 고금리
2010년대	반값기숙사, 기숙형 대학, 선진국형 기숙문화, 대학경쟁력의 중요한 시설	직영, 민영, 행복(공공)기숙사 등장 RC개념의 선진국형 기숙사문화도입
2015년	문화, 봉사, 교육의 창조공간 생활관 수료증 발급시대	호텔급 생활관 시설의 등장 시대가 원하는 인재양성

의 생태계다. 위대한 청년들이 미래로 도전하는 씬 플레이스다.

해외 대학들은 이미 기숙사(Dormitory)라는 용어대신 레지던스(Residence)라는 말을 쓰며 집단 수용소와 같은 느낌을 탈피하고 숙박이 아닌 주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한국의 대학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 2. 생활관의 무한돌봄 - 24시간, 365일 계속 운영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생활관 관리자들은 늘 노심초사란 말을 달고 산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부서여서 그렇다. 주말과 휴일에도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고민하는 게 생활관 관리자의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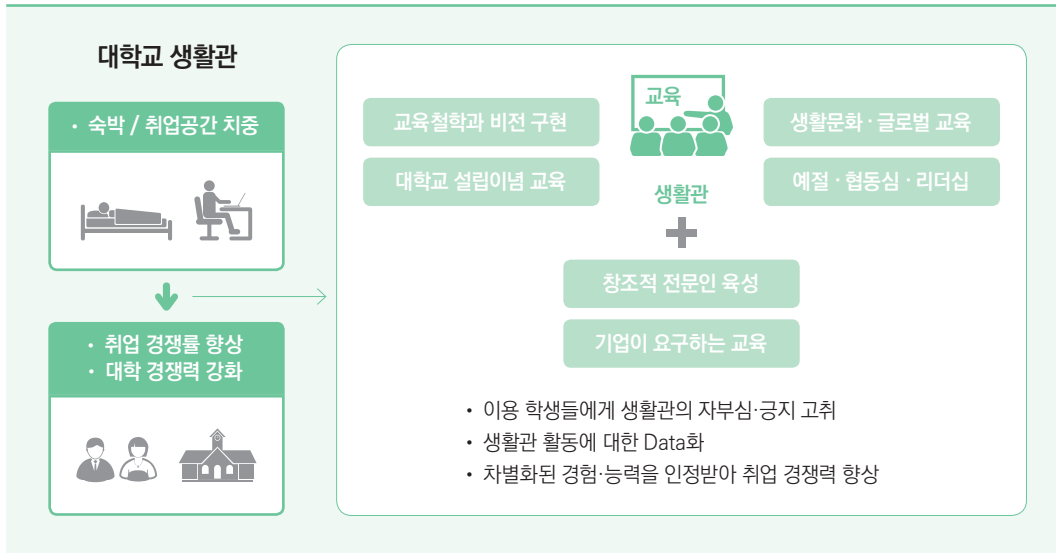
담뱃불로 인한 화재사고, 술에 취한 낙상사고, 야간의 남녀혼숙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상벨이 울려 전화가 오고 비상대처를 해야 한다. 생활규칙을 위반한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큰 소

리가 오가며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맹목적 이기주의에 사로 잡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막무가내 민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기피부서로 알려진 생활관 업무는 애정과 비전이 없이 하기엔 무척 힘들다. 그러나 노심초사하면서도 학생들을 키우는 보람, 학생들의 보호자와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갖는다.

생활관 관리일을 시설 관리하는 것,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으로만 보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처음 만지며 코끼리의 코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 생활관에서는 대학 내 여러 부서의 일이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활관은 주로 대학 내의 부속기관으로 회계와 인사가 독립된 경우가 많고 업무도 다양하여 여러 부서의 일이 복합되어 있다.

생활관 관리자들은 각종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기획하고,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타 대학을 벤치마킹하고,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기도 한다.

자료2 | 2015 행복한 대학기숙사 운영관리과정 자료 중 생활관의 변화요구



시설과의 생활관 시설 관리, 민방위나 안전부서 처럼 화재와 재난 안전관리, 학생지원과의 학생 관리와 지원, 재무과의 공과금 납부와 수입과 지출 등 재무제표 작성과 결산, 입학과의 학생선발과 합격, 문화와 봉사를 추진하는 기획과 업무,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대외협력 업무, 학생상담연구소처럼 학생갈등예방과 상담 업무, 생활관 학생들을 위한 진로와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과 업무 등 다양한 부서의 복잡한 업무영역이 생활관에 응집되어 있다. 대학별 인력과 예산, 조직의 지원 정도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3. 따뜻한 교류의 장, 대학생활관협의회

생활관 관리자들에게 있어 대학생활관협의회는 남다른 애정이 있는 단체이다.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미나와 정기 교육연수 때에 정보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긍지와 열정을

갖고 보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교류의 장이기 때문이다. 처음 협의회 연수교육에 참석하더라도 낮설지 않고 “오길 참 잘했다”, “좋은 선생님들과 즐겁고 유익한 만남이었다”라며 뿌듯한 마음을 갖고 돌아갈 것이다.

대학생활협의회 2015년 4월 28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생활관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행정서비스 37%, 학생보호자 28%, 교육자 21%로 나타났다. 생활관 관리자로서 필요한 역할은 행정서비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대신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인성을 교육하는 중추적 역할임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줬다. 대학경영진이 환영할만한 일이다.

생활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경영진의 관심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데에는 대학경영진이 생활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 교육의 대안과 대학 경쟁력 향상의 핵심부서라는 인

## 자료3 | 2015년 상반기 대학생생활관협의회 정기연수



식이 아직 보편화 되지 못해서라 생각한다. 과거 주거시설로만 생각하던 생활관은 이제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서적·교육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

대학생활관의 운영과 발전, 생활관 관리자들의 전문성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전국대학교생활관관리자협의회가 1990년 4월 6일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2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181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교육, 훈련, 정보 교류, 연구 등으로 생활관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공시의 대응 등 대학생활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대학생활관협의회는 23대 회장(김기철, 경희대)을 중심으로 부회장 2인(이승 동신대; 강대진 세종대), 감사(신영섭, 초당대), 사무국장(강성원, 경희대), 지역별 지회장 6인, 고문 2인(백효현 중앙대; 김세원 대구공업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회별로는 서울·강원지회(회장 길홍모, 동국대), 인천·경기지회(회장 서명석, 명지대), 대전·충청지회(회장 김현동, 세명대), 광주·전라지회(회장 최영규, 우석대), 대구·경북지회(회장 조정우, 동국대),

부·울·경지회(회장 김동윤, 경성대)가 있다.

대학생활관협의회는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보다 나은 생활관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생활관 교육 강사의 파견, 모범사례의 발굴, 생활관 개선방안 연구, 정부 정책 이슈의 토론 등 임원과 회원 모두가 현업에 바쁜 와중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4. 뜨거운 이슈 토론의 장, 대학생생활관협의회

다른 협의회의와 특이점은 동종업종의 모든 인원이 총망라되어 교류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의회 대부분이 해당 부서의 팀장(직원)간, 처장(교수)간 교류이나 생활관협의회는 관장인 처장급(교수, 2~3급 직원)에서 팀장과 직원, 영양사 등 생활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들이 직급과 나이차를 넘어 생활관의 소속감을 갖고 만남의 장과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 정보공시에 대비한 준비내용,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이해와 실무의견 제시, 생활관의 문화와 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발전의 자극과

자료4 | 2015년 상반기 대학생활관협의회 이슈토론 주제



힌트를 만들고 있다.

연수교육 중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도 활발하다. 특히, 강의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생활관 전체의 문제와 주요이슈를 사전에 정리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여 모범사례를 듣고, 각자 토론을 정리하여 중지를 모아 가고 있다. 협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반응이 뜨겁다.

### 5. 생활관의 이슈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전달

특히 생활관 의무식의 규제완화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학생들이 식비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전날의 과음상태로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오히려 침해받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율식의 명분은 좋지만 식수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단가상승과 식당 운영인력의 축소 등은 가격은 비싸지고 질은 낮

아지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이긴 하지만 대학이 학생대표들과 대화와 협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만 명의 생활관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협의회는 이슈토론의 자료를 온라인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lovedormitory>)를 통해 공개한다.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신규로 생활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직원들의 타 대학 비교자료와 최신의 이슈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회원교의 질문에 답글을 달아주는 밴드모임을 활성화시켜 대학별 비교자료 작성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개별학교의 정보와 경험의 한계를 넘어 각종 사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쉽지 않으나, 협의회를 통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 보석 같은 지혜와 정보의 창고를 만날 수 있다.

## 6. 생활관은 교육과 문화, 봉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중

생활관의 교육과 문화, 봉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었다. 또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 관리가 불필요한 품격 높은 문화적 생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과 방을 함께 쓰며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글로벌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 생활관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리고 타인과 약자,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몸소 배워 사회 생활의 멋진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생활관에 입교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을 검증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생활관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자 한다. 이곳은 먹고 자는 곳만이 아니다. 생활관은 불타는 청춘을 위한 위대한 창조공간이다. 이제 '대학을 졸업 하는 게 아니라 생활관을 졸업했다'라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취업시장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성교육과 외국어 교육, 문화적 감수성과 다국적 다양성을 겸비한 인재가 양성되는 곳이 생활관이 될 것이다.

대학경영진과 정부의 정책이 전국의 30만 생활관 학생들의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가능성의 공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럴 때 대학별로 생활관의 인력을 전진 배치하

여 생활관의 새로운 기획과 증장기 전략을 세워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 일을 미루면 시대에 뒤처지는 대학이 되고 말 것이다.

## 7. 자부심으로 생활관의 미래를 창조한다

기숙사에서 생활관으로 이름이 바뀌며 발전하는 데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생활관에서 생활 교육관과 창조관으로의 도전과 발전은 지금 빠르게 진행 중이다. 생활관의 미래는 기다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맞들지 못하거나 시도하지 않는 현재를 극복해야 한다. 기다리면 답은 없다.

생활관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문화인으로서 품격을 느끼고, 봉사를 통한 기쁨과 교육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한다. 생활관협의회와 함께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한 생활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은 들지만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나누는 일, 그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다.

생활관은 자유와 지성의 캠퍼스 타운이고 문화와 도전의 지식생태계로, 글로벌 교류센터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오늘도 생활관 곳곳에서 노심초사하며 학생들과 동고동락할 생활관협의회 회원여러분, 파이팅!

필자소개

### 강대진 전국대학교생활관협의회 부회장 / 세종대학교 건설개발과 주임

세종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에서 재무와 자산관리 업무를 하였다. 대외 활동으로 한국대학경영연구소 부소장과 전국대학교생활관협의회 부회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건설개발과 주임으로 생활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정글CEO』(공저), "기숙사의 정보공시와 주요이슈들"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경영, 수익사업, 생활관의 문화와 봉사, 기숙형 대학의 교육 등이다.